

이홍재의 세상만사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은 그 인격도 고매(高邁)할 것이란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환상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다. 서정주를 비롯해서 적잖은 시인들이, 그 사람의 시와 인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준 것이다.

최근 잇단 ‘문단 내 성폭력’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던 것 역시 그 때문이다. 성폭행한 체제와 3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폭력을 가했다는 한 중견 시인(소월시문학상 수상·대학교수)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도 잠시 ‘누굴까?’ 궁금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니 이 자리에서는 그가 박 아무개라는 것만 밝혀 두자.

시를 가르쳐 준다며 여자 습작생을 불러 성폭력을 저지른 시인도 있다. 자살을 하겠다고 시인이 연락해 와 황급히 그의 집에 갔더니 ‘너는 색기가 도는 얼굴’이라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이 시인의 이름은 박진성(38)이다.

성 추문에 연루된 문인 중에는 유명 소설가도

있다.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작가의 이름은 소설 ‘은교’를 쓴 박범신(70)이다. 그는 소설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동안의 경험을 소설로 옮긴 것일까?

문제가 터지자 이들 두 작가는 즉각 사과했다. 이중 박범신 씨의 사과문이 눈길을 끈다. “스탈린이 그랬듯 ‘살았고 썼고 사랑하고’ 살았어요. 오래 살아남은 것이 오욕~ 죄일지도. 누군가 맘 상처 받았다면 나이 든 내 죄책지도. 미안해요~” 아무리 소설가라지만 사과하면서까지도 맛을 부리는 것인가. 기분이 찜찜하다.

내일은 또 무엇이 터지나

어제는, 어린 습작생들을 농락했던 배유제(53) 시인과 백상웅(36) 시인이 절필을 선언하고 사과(謝過) 대열에 합류했다. 가을은 마치 사과의 계절이라도 되는 양 요즘 우리 사회에 사과가 넘쳐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개를 숙일 것 같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마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날, 박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1분40초 동안 짧은 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말없이 되돌아나갔다. 사과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의혹만 더 키우고 만 회견이었다. 이마저 최태민의 딸 최순실(60) 씨가 어디 숨어서 써 준 것은 아닌지?

자고 나면 입이 짝 벌어질 뉴스들이 꼬리를 몰고 일어난다. 최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만 수정한 게 아니라 안보·외교·인사까지 손대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니 최 씨를 보면서 조선 말기 명성황후의 비선 실세였던 무녀(巫女) 출신 진령군(眞靈君)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박 대통령을 언니로 불렀다는 최 씨의 위세가 결코 진령군 못지않았을 것을 생각하면, 여기저기서 ‘국정 농단’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언덕 ‘농’ 자를 쓰는 ‘농단’(蠱斷)은 원래 깎아지른 듯이 높이 솟은 언덕을 말한다. 옛날 한 상인이 높은 곳에 올라 가장 좋은 자리를 살피 잡았다는 데서 유래해, ‘혼자서 거재를 좌지우지함으로써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뜻을 갖는다. 아첨마를 비하하려는 뜻은 없지만 한낱 아첨마에 불과한 최 씨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놔다 한 셈이니 사상 유래 없는 국정 농단임은 틀림없겠다.

하지만 이때는 ‘농단’보다는 ‘농락’(籠絡: 새장과 고베, 남을 교묘한 꾀로 휘잡아서 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함)이란 말이 더 적절할 듯싶기도 하다. ‘농’(籠)이라는 글자를 보면 대바구니(竹) 안에 용(龍)이 들어 있다. 이는 용을 잡아 바구니에 담는다는 뜻이니 ‘무슨 일을 제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다. 최 씨가 박 대통령(용)을 꼭꼭자사처럼 조종했다면 이거야말로 글자 그대로 ‘농락’일 것이다.

그럼에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강하게 고개를 흔들던 이 누구였는가. 배신을 싫어해서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본단던 박 대통령은 실제로 ‘아몰랑 왕국’에 살았음이 분명하다. ‘아몰랑’은 ‘어떤 주장의 근거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막무가내로 뚱개고 잡아떼는 행동’을 뜻하는 신조어이니 이처럼 박 대통령에게 딱 어울리는 단어가 또 어디 있겠나.

언니 다 끝났어 그만 내려와

‘최순실 게이트’는 거대한 빙산과 같아서 그 크기를 아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따라서 쇠뿔처럼 하고많은 의혹을 이 짧은 지면에 열거하는 것은 애초 무리일 것이다. 다만 어느 시인이 최근에 쓴 ‘아몰랑 왕국 이야기’는 지금의 최순실 사태를 한 장의 그림처럼 확연히 보여 준다.

“그 나라는 많은 것이 이상했다. 편전에서 조회를 열면 왕은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말만 했다.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이 꺾 답장을 넣어 들어왔다. 사관의 사초는 물론 국가 대소사를 적은 문건이 승지의 손을 거쳐 궁궐 밖으로 나갔다. 수렴정정하는 대비마마는 눈물이 없었다. 백성이 죽어 나가고는 하나 꿈쩍하지 않고 조사를 그만 두라며 서릿발 같은 교지를 내렸다. 개성에 자리 잡고 교역하던 백성들을 예고도 없이 불러들여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 죽였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진다. “간신배들은 비리 공장을 후원에 지어 검은돈으로 호의호식했으나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승정원도 임금 부도 대비마마에게 달려가 앞도라면 그만이었다. 개폐지에 지나지 않는 백성들은 녹조가 낀 물을 마시고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흉수로 떠나려가도 상관없었다.”

이제 ‘왕국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을 보자. “무당의 딸 순실대비 마마가 통치한 기간 동안 그 나라는 승냥이와 이리들이 궁궐 안에 득시글거렸고 온통 점괘로 국사가 운영되었으며 백성은 철철 피를 흘리며 궁궐한 목숨을 연명했다. 그 이상한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다.”

아, 먼 옛날이 아닌 바로 ‘동방순실지국’ 얘기였구나.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박정희 독재 시절 ‘밤의 대통령’이 따로 있던 말은 들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낮 대통령’과 ‘밤 대통령’이 따로 있었다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이제 ‘탄핵’이니 ‘하야’(下野)니 하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참담한 심경으로만 말한다면 박 대통령도 국민들과 다르진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해 부지런히 퍼 나르고 있는 어느 만화(만평) 속 대통령의 모습이 처연한데, 몇 마디 대사가 집단 ‘팬붕’(때나, panic)에 빠진 우리를 ‘웃뜨게’ 한다. “순실이 자니? 전화 좀 받아... PC는 왜 버렸어?ㅠㅠ 이제 어스께?”

〈주필〉

해남땅끝호텔 33억... 결국 반값에 팔렸다

잇단 유찰에 수의계약... 영산재·오동재도 같은 처지... 전남개발공 “손해 줄이려 조기 매각”

해남땅끝호텔이 33억3300만원에 서울의 한 업체에 매각됐다. 매각공고에 참가자가 없어 잇따라 유찰되면서 전남개발공사는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매입 및 리모델링을 단행한 당시 전남개발공사 책임자의 잘못된 결정이 결국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27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민간이양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여수 오동재, 영암 영산재, 땅끝호텔 등 3곳을 대한 1·2차 매각 입찰공고에 참가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이들 호텔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에 나서 최근 땅끝호텔의 새 주인이 나타났다. 여수 오동재, 영암 영산재는 매년 8억원 이상, 땅끝호텔은 6억원 이상 적자가 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적자 누적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이들 호텔의 매각을 서둘렀으나, 험갈 매각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땅끝호텔은 전남개발공사가 2010년 민간사업자에게 35억원에 매입한 뒤 이후 50여억원을 들여 리모



일하고 싶어요

‘2016 광주·전라 수출입기업 채용박람회’가 27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참가업체 부스에 취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회사 관계자들과 상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델링했으며, 이후에도 매년 수익원의 운영비가 투입됐기 때문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9년 3월 경매로 나온 땅끝호텔을 매입, 리모델링을 통해 2010년 7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당시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건물 35억원, 리모델링 공사비 25억원을 투입할 경우 2년 차부터 매년 4억2000만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으로 50여억원을 투입했으나 투숙률 역시 당초 예상(52%)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현장조사와 사업타당성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땅끝호텔과 함께 2차례 유찰로 수의계약 매각 대상인 영산재와 오동재

도 당초 매각 예상 금액인 116억원과 271억원을 한참 밑돌 가능성도 높아졌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들 호텔들은 매년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서둘러 매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줄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수서발 고속철 요금, KTX보다 14% 저렴

광주송정 4만700원...목포까지 4만6500원

12월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SRT)의 운임이 KTX보다 평균 10%, 최대 14%까지 낮게 책정됐다.

SRT 운영사인 ㈜SR는 최저운임을 7천500원으로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운임 신고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구간별 기준운임은 수서~부산 5만2600원, 수서~목포 4만65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KTX보다 평균 10% 저렴하다.

특히 수서~동대구, 수서~광주송정

은 구간 비례 할인 폭이 커 각각 3만7400원, 4만7000원으로 최대 14%까지 운임이 낮아진다. 수서발 열차는 서울발 대비 약 17km, 용산발 대비 약 14km 운행 거리가 짧다.

특실 최저운임은 일반실 대비 45% 비싼 1만9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른 특실 운임은 수서~부산이 7만6300원, 수서~목포는 6만7400원이다.

／연합뉴스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정승(58) 신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8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임직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정 신임 사장은 완도 출신으로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강원대 대학원에서 농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2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1979년부터 농식품부 농촌개발국장, 농림수산기



술기획평가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역임했다. 농식품부 재직 시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농지은행 사업기반 구축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식약처장을 지낸 때는 식·의약품의 위생 안전성 제고 및 수출증대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오광목기자 kroh@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1247-7700 0621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대표제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송부

010-3598-7080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 · 사무실 · 병원 등 최적입지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문의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에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한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활동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정확 문익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